교육 담당 기자가 바라보는 세상

중부일보

신연경 기자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1학년 늘봄교실. 신연경기자

'어린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중간고사,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축제'

달력과 취재 수첩에 빼곡하게 표시해 둔 일정은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가 푸르른 5월을 써 내려가는 기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뜻하는 교육(敎育).

학창 시절을 지나 대학 졸업 후 8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교육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2024년 1월 오랜만에 사회부로 발령을 받고 교육청에 출입하기 전까지 말이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다.

학생들이 2025학년도 학사일정에 맞춰 1년을 보내는 것처럼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를 만나는 나의 시간도 교육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건·사고 소식에 학생 걱정부터

지난 3월6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군 소속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당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한편, '인근에 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진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취재해 보니 당시 4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뒤인 4월11일 광명시 신안산선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 당시에도 사고 현장으로부터 불과 50여 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조치와 학사 운영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취재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이 모두 잊지 못할 2024년 12월3일 늦은 밤, 계엄 소식을 듣고 '내일 학생들 등교는? 유네스코 국제포럼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 하고 걱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3일간의 일정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진행하던 때였다. 90개국 180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사회 전환의 시기에 맞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였기에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이 국가적인 행사에서 미칠 영향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사건·사고 소식에 학생의 안전을 연관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학교 밖이 아닌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만들기 위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교육계가 나서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죠."

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일이 벌어지자 경기 지역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했다. 지역을 넘어 전국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불안해했고, 단순히 사건·사고로만 볼 수 없었다.

경기도 내에서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나 교사를 위협하거나 민원으로 교실을 방문한 학부모가 교사를 위협하는 등 학교 내 안전이 위험한 상황은 계속돼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의 질병 휴직 절차를 점검하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사실상 교직 수행에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보호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실정을 확인했다.

교육 현장에서 만난 한 중학교 교사는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작성한 '친구야 사이좋게 지내자' 메시지. 신연경기자

"학부모 민원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이나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상 학교장 눈치도 봐야 하고 대체할 여유 인력이 없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미루게 된다"고 토로했다. 지원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다.

필자는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학교 안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다양한 교육으로 세상을 배우는 공간인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 중 하나다.

지난 4월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점검한 경기도의 학교 안전사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 수업이 감소했던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였다.

수업 시간과 점심시간, 체육대회나 현장학습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0년 8368건에서 2021년 2만270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 4만8370건, 지난해 6만1690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 매뉴얼을 촘촘히 마련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도 안전을 우선시해 같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안전은 몸을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또래 관계, 학교 폭력, 담배·술·마약과 같은 유해 환경에 놓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2024년 7월18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개최한 '순직교사 1주기 경기추모문화제'에서 교사들이 "우리가 교육을 바꿉시다"라고 외치고 있다. 신연경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10대 청소년들이 게임뿐 아니라 알코올, 니코틴, 마약에 노출돼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해 청소년 중독 실태에 관심 갖고 취재한 이유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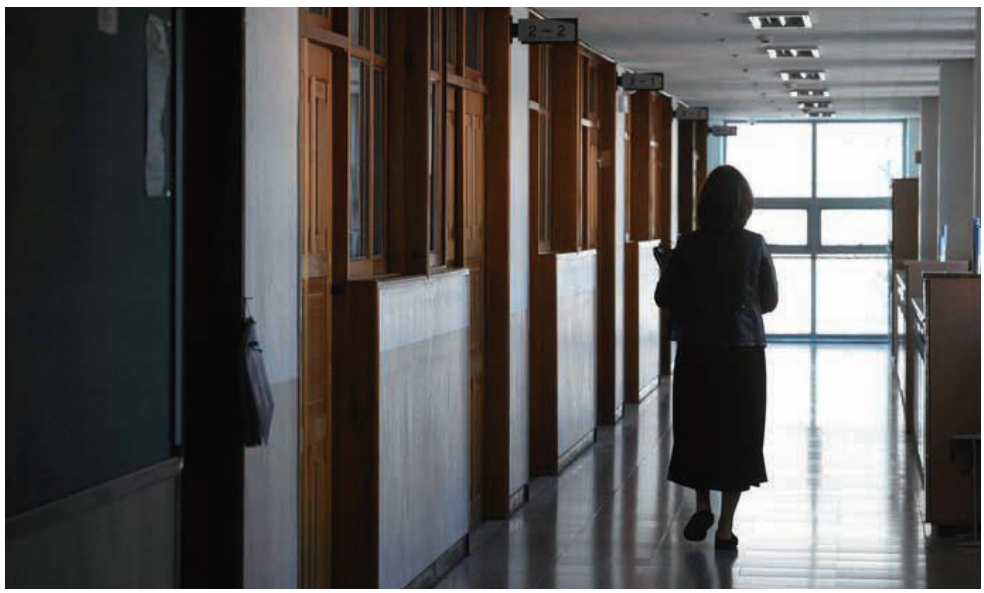
친구, 선후배 사이에서 놀이로 시작했던 게임이 도박으로 향하고, 공부하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먹었던 약이 마약류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

인터뷰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정부와 학교, 경찰, 사회복지기관 등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언론에서도 중독의 위험성과 실태를 보도하고, 예방을 위한 방안과 국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늘도 책임감을 느끼고 160만여 명의 유·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기교육의 면면을 살펴보고 때론 따뜻하게, 때론 냉철하게 현장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생님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

교육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 올해 교육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교과목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한편으로는 교육 활동에서 겪은 멍든 마음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행복한 학생 · 교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 사진=중부일보

앞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이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 3408명 중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2.3%(245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가 담겼으나 실제 교사들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교육 활동 침해를 겪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학생을 가르치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교육 당국은 출입관리시스템과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원인이 교실과 교무실을 찾아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 지역 교사들은 5월30일 추모문화제를 열고,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민원을 겪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행복한 학생·교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이다. 어느 곳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한 눈과 귀로 교육 현장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며 보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나가길 다짐해 본다.

중부일보 신연경 기자